

2026년 10월 09일(금) 구역예배 자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7~32절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449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5장 27~32절(신195)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352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10월 04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여러분은, 뉴스나 신문을, 즐겨 보십니까?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어느 채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채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비중 있게 그 사건을 다루는 반면, 다른 신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다룹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소식을 다루지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과 긴장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한 가지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밤에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했는데, 부하들이 감옥에 가보니, 그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 온 후에, 그들은 사도들을 심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이 심문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기적에 의해 빠져나온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이름’이라고 표현하면서,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공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시인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팽배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칭찬은커녕, 부인과 외면과 핍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러한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좋은 점과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공회 앞에서, 사도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의 말은, 이미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였는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신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로마서 13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3-14절) 그러나 성경은, 권세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까지 순종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공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심을, 고백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똑같은 상태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간적인 뜻, 여러분의 죄로 물든 욕망이, 여러분을 선하게 이끄시려는 성령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구역예배, 새벽기도회 등, 말씀의 자리로 나아와,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꺼이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구역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기>

1. 믿음의 지체를 시기했던 적이나, 반대로, 칭찬하며 다투아가려 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말씀을 가까이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사, 내 삶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